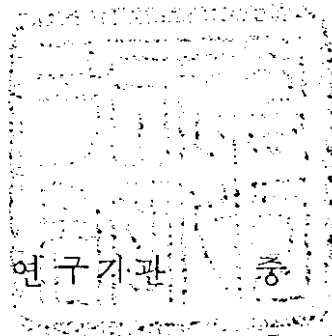


이 보고서는 국토통일원 74년도 하반기
학술용역에 관한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1974. 10. .



연구기관 충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책임자	박종성
	위원	김영성
		금선
		구본태

남북대화의 현안문제점과 대책

제 1 부 써 미 나 3

제 2 부 논 문 21

第 一 部 세 미 나

(1) 統 一 에 의 길

..... 金 永 声 (5)

(2) 北 韓 社 會 의 問 題 點

..... 朴 一 聖 (9)

(3) 統 一 을 為 한 對 備

..... 具 本 泰 (15)

(4) 南 北 對 話 와 우 리 의 姿 勢

..... 安 鴻 國 (17)

8. 15의 三大 基本原則宣言

첫째, 南北은 相互不可侵 協定을 締結,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켜야 한다.

둘째, 南北對話를 誠實히 進行시켜야 하며, 南北間에 相互門戶를 開放, 多角的인 交流와 協力等으로 相互信賴를 回復해야 한다.

셋째, 이 바탕위에서 公正한 選舉管理와 監視下에 土着人口比例에 의한 南北韓 自由總選舉를 實施하여 統一을 이룩한다.

(三) 南北對話는 理念과 體制를 超越한 民族的 立場에서 祖國의 統一을 實現하려는 하나의 努力的 構想에 不過하다. 따라서 우리는 國際情勢의 挑戰과 南北對話의 再開 및 그推進이라는 두課題에 能動的으로 對処하기 爲하여 國內的인 體制의 整備強化와 그改革의 必要에 부딪친다.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過去的인 反共體制를 止揚하고 統一에 對備하는 「對話態勢」即「統一体制」의 構築을 수반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이다.

어떻던 우리는 스스로를 保衛할수 있는 国力(National Power)의 保障없이는 南北對話를 이끌어 나갈수 없다는 意味에서, 統一을 위한 国力의 劃期的이고도 加速的인 培養을 위해 總力を 傾注해야 할것이다

(四) 現實과 自己利害는 맞선다

統一意志의 있고 없음이 統一雰圍氣에 미치는 影響은 실로 큰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統一概念의 創造的 模索과 그定立이 必要하다. 兪컨데 지난날의 豫想되는 必要值數 플라스 豫想되는 必要值數는 한

결같은 固定値數가 된다는가 하는 式의 傳統的 統一概念이 아니라
即 豫想値數와 必要値數가 합쳐 從來的 固定値數 아닌 豫想밖의 値
數마저 감안하는 가운데 어떤 値數들 만들어내는 그런 式의 統一을
이른바 새로운 統一概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끝으로 우리는 獨逸式 統一概念에서 많은 시사를 받아야 할 것 같
다 . 即 그것은 말하자면 「小步政策」에 대한 느낌이기도 하다 .

北韓社會의 問題點

朴一聖

目 次

1. 序 論 (問題의 提起와 目的)

2. 北韓社會의 基本形態와 그 問題點

3. 北韓社會의 變數別 矛盾點

◎ 參 考 : 北韓經濟의 沈滯相과 問題點

4. 北傀의 矛盾打開戰略과 問題點

5. 北傀의 最近動態와 그 徵候

◎ 參 考 : 西方側의 對共戰略 史例와 우리의 可能性

6. 結 論

1. 序 論

南北對話의 經驗과 周邊情勢는 祖國의 目的 平和統一의 先行要件으로서 南北韓에 過渡的으로나마 平和共存의 制度化를 “過程으로서의 統一”로 받아들일것을 要求하고 있다. 그러나 北傀는 이를 拒否할뿐 아니라 오히려 美軍駐屯下에서라도 韓國政府를 早速히 轉覆시킬것을 試圖하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本課題는 그와같은 北傀意圖形成에 常數格인 北傀의 本質을 歷史進化의 한 過程으로 보고 비록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에 變化를 일으키게할 北韓社會의 變數와 問題點들을 分析하여 過程으로서의 統一要件인 南北韓平和共存의 當爲性과 그 可能性을 追求하는데 多少나마 資하려고 한다.

2. 北韓社會의 基本形態와 그問題點

가. 共產社會에서 본 北韓의 歷史的位置

豫備革命期	民主主義革命段階	教條主義	
	1. 民主主義革命段階	"	
社會主義革命期	社會主義建設段階	"	◎ 北 傀
	社會主義成熟段階	修正主義	(東歐, 蘇聯)
共產主義革命期	共產主義建設段階	?	
	共產主義成熟段階	?	

問題點

○ 北傀의 教條主義	○ 北韓社會의 落后性
------------	-------------

나. 北韓社會의 基本形態와 그 常數

基本形態	○ 一國社會主義形態 = 韓半島赤化統一의 基地形
常數 (本質)	○ 對內獨裁體制 + 南侵體制 → 金日成線에서 統一化

特殊性

○ 金日成의 專制主義的 體制 = 過渡調整社會

問題點

○ 體制의 硬直性	○ 住民의 無氣力化
-----------	------------

3. 北韓社会의 变数別 矛盾点

变 数	權 力	思 想	經 济
内 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日成唯一支配化 ○ 革命世代의 幹部化 ○ 族閥政治의 強化 ○ 住民의 完全疎外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日成主体見想 宗教化, 唯一化 ○ 目標文化의 教条化 ○ 移転文化의 硬直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党의 独点化 ○ 党员의 官僚化 ○ 軍需의 自給化 優先化 ○ 労働의 強制化
矛盾現象	○ 權力의 化石化	○ 思想의 窒息化	○ 經濟의 沈滯化

影 響
問 題 点

○ 北韓社会의 常数弱화 - 基本体制의 存立 威脅

評 価

○ 過渡期 社会立義体制의 必然的 帰結

○ 参 考：北韓經濟의 沈滯相과 그 問題点

가. 經濟成長의 比較

(G. N. P)

区分 \ 年度	56 ~ 56	57 ~ 60	61 ~ 64	65 ~ 70	71 ~ 73
北 韓	30 %	21 %	9.6 %	7.5 %	7.0 %
東欧, 蘇聯	11.0 %		4.0 %	7.0 %	5.2 ~ 11% (루마니아 11%)
韓 国	4.4 %	5.3 %	6.3 %	10.3 %	11.0 %

南北韓의 所得
隔差 擴大相

区分 \ 年度	60	70	73	76(전망)	81(전망)
GNP(南/北)	1.6	2.2	2.8	3.1	4.0
1人当GNP (¢)	0.6	1.0	1.3	1.5	2.0

問 題 点

○ 对内 对南 전략의 修正 不可避

統一을 위한 對 備

—統一理論의 一般의 展開와 그問題點—

具本泰

1. 序: 科學的 統一理論 形成의 必要性

統一이라는 目標下에 展開되는 諸般現象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經驗이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現象을 理解할수 있는 認識體系 또는 論理的 知識體系를 갖고 있지 못하다. 우리가 적절한 知識 體系를 갖추지 못한 狀況下에서 새로운 現象을 理解하려 할 경우 이 現象自体에 對한 疑問과 混同이 생긴다.

왜냐하면 전혀 現象과 關聯이 없는 이미 갖고있는 다른 知識體系를 通해 이들 理解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統一에 關한 科學的 理論形成의 必要性은 이같은 統一과 關聯된 諸般 새로운 現象을 理解하고 또 豫測하기 위한 論理的 知識體系를 樹立하는데 있다.

2. 基本概念: 統一과 統合

科學的 統一理論을 形成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統一概念에 關한 새로운 認識이 必要하다 既往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統一概念은 軍事的이거나, 武力에 依한 것이거나, 領土的인 概念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統一의 概念은 平和的 方法을 通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서 전혀 認識의 基礎부터가 다르다. 平和的 方法에 依한다함은 보다 장기적인 時間과 繼統的인 努力을 前提한다. 따라서 統一은 하나의 理念—即 民族理念 내지 統治理念—으로 받아들여지고 이러한 理念을 現實적으로 實踐하는 論理로서 「過程으로서의 統一」 即 「統合」이라는 새로운 概念 設定이 必要하다

3. 統一接近 方向: 「안」에서 「밖」으로

적어도 統一의 方向을 設定하는데 있어서는 韓半島가 處해있는 内外의 基本的인 狀況이 問題된다. 오늘날 韓半島 外的狀況은 共存秩序의 追求이다. 이는 現象유지(Status quo)의 前提下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비록 統一된 韓國이 周辺 強大國들의 國家利益을 阻害하지 않는한 이를 首肯할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 스스로 韓國의 統一을 위해 能動的으로 努力할 것이라는 期待를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外的狀況을 감안할때 韓半島 統一의 問題는 우리民族 스스로의 課題이며 우리만이 그 突破口를 열수 있는 性質의 것이다.

韓半島 內的狀況은 基本的으로 民族(同一韓民族) 理念(自由·共產)의 「二重構造」를 이루고 있다. 民族次元은 韓半島 統一을 위한 肯定的인 요소이고 理念次元은 否定的인 要素를 말한다. 따라서 統一의 方向은 民族의 次元이 理念의 次元을 調和시키는 方向으로 推進되어야 할것이다.

4. 統一을 위한 對備: 統一理論 形成을 위한 論理的 展開와 問題點
韓半島 統一은 다음 4가지의 論理的 課題를 体系化 시키므로써 對備할수 있을것으로 본다.

(1) 共存論理 (2) 協商論理 (3) 接觸, 交流의 論理 (4) 統合의 論理
것째는 어떻게 하면 既往의 自己體制 肯定, 他方體制 否定이라는 立場에서 自己 一方만이 絶對的 價値를 保有한다는 絶對論理를 扞拂하고 韓半島 内外에 南北韓이 共存하는 論理를 實現하느냐는 것이다.

둘째는 어떻게 하면 統一過程에서 必然的으로 거쳐야 할 「場」의 하나인 協商論理를 統一指向的으로 展開하느냐는 것이다.

셋째는 南北韓의 前提가되는 接觸 交流를 여하히 그리고 어디서부터 始作하고 또 어떻게 이를 維持 擴大시키는 論理를 發見하느냐는 것이다.

네째로 궁극적으로 統一의 結果를 가져올수 있는 實踐論理로서 統合 理論을 完成하느냐는 것이다.

5. 結 論

統一의 課題는 결코 어느한 世代에 만의 責任이 아니다. 統一現象 一般을 理解하고 豫測할수 있는 보편, 타당한 論理的 知識體系를 갖출 때 이러한 責任은 繼續될수 있다.

統一과 關聯된 모든 現象은 우리만이 經驗하는 初有의 現象이다. 이러한 點을 감안할때 現實을 論理로 克服하고 發展시키는 꾸준한 努力이 繼續되어야 할 必要가 있다. 統一에 關한 올바른 知識體系의 形成은 統一에 關한 國民的 姿勢를 하나로 結集시킬수 있을뿐 아니라, 나아가서 궁극적인 統一의 結果를 앞당길수 있는 길이 될것이다.

南北對話와 우리의 姿勢

安鴻國

1. 南北對話의 背景

國際情勢와 韓國의 統一問題

70年代는 2次世界大戰後의 冷戰에서 脫冷戰時代의 轉換期에 處하고 美·蘇의 兩極體制로부터 多極體制下의 緊張緩和, 平和共存으로 表現되고 있다. 脫冷戰의 特徵은 對話로서 象徴되며 對話는 複數의 政治的 單位間의 平和的인 接觸을 意味한다.

韓半島를 둘러 싸고있는 美, 日, 蘇, 中共의 四極體制가 果然 우리의 平和的 統一을 促進시켜줄것인가 或은 오히려 南北의 分斷을 固定化시킬것인가 하는 問題들 먼저 신중히 檢討되어야할 것이다.

2. 우리의 統一政策과 南北對話

大韓民國의 統一政策은 70年代의 多極體制下의 勢力均衡과 平和共存의 世界情勢에 能動的으로 對處하며 同族間의 戰爭을 防止하여 南北間의 緊張을 緩和함으로서 民族의 念願인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指向하여 南北의 對話를 通한 自主的이며 平和的인 南北關係改善을 圖謀하기 위하여 朴正熙大統領이

1970 . 8 . 15 8 . 15宣言

1973 . 6 . 23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

1974 . 1 . 18 南北韓 相互 不可侵 協定提議 등을 통해

명백히 밝혀놓은바 있다. 즉 平和統一, 自主統一, 民族團結로 要約되며 이 實現을 위하여 1971. 9. 20 南北赤十字會談이 進行되고 있는 가운데

1972年「7.4共同声明」이 發表되고 1972. 10. 12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 第一次 會議가 板門店에서 열렸다.

3. 北韓의 統一戰略

赤化統一路線과 收買主義

北韓共產主義의 戰略戰術과 南北對話

4. 南北對話의 問題點

① 統一政策의 對立

② 赤十字會談의 問題點

北赤主張의 不當性

○ 「法律的, 社會的, 條件과 環境改善」

③ 調節委員會 問題點

韓國의 主張은 現實的으로 可能한 分野 即 人道的 問題에서 經濟, 社會, 文化等 非政治分野의 優先進行 主張 北韓側은

첫째 10萬減軍問題

둘째 外國으로부터의 武器輸入禁止問題

셋째 韓國에서의 美軍撤収 主張等

軍事問題의 解決의 先行條件과 政治, 軍事的 問題의 一括處理에 政治 協商會議을 主張하였다.

以外에도 南北聯邦制의 主張과 大民族會議의 主張이 있으며 北韓側의 主張은 우리의 對共意識의 弱화 韓, 美共同防衛力의 弱화 對内外의 宣傳과 우리의 國論分裂等を 戒하는 底意로 南北對話를 그들의 赤化統一의 戰略의 一環으로 보고 그 目的을 達成할수 없음에 對外

的으로 對話斷絶의 責任을 전가하려는 그 底意가 있다고 할 수있다

5. 南北對話의 展望과 우리의 姿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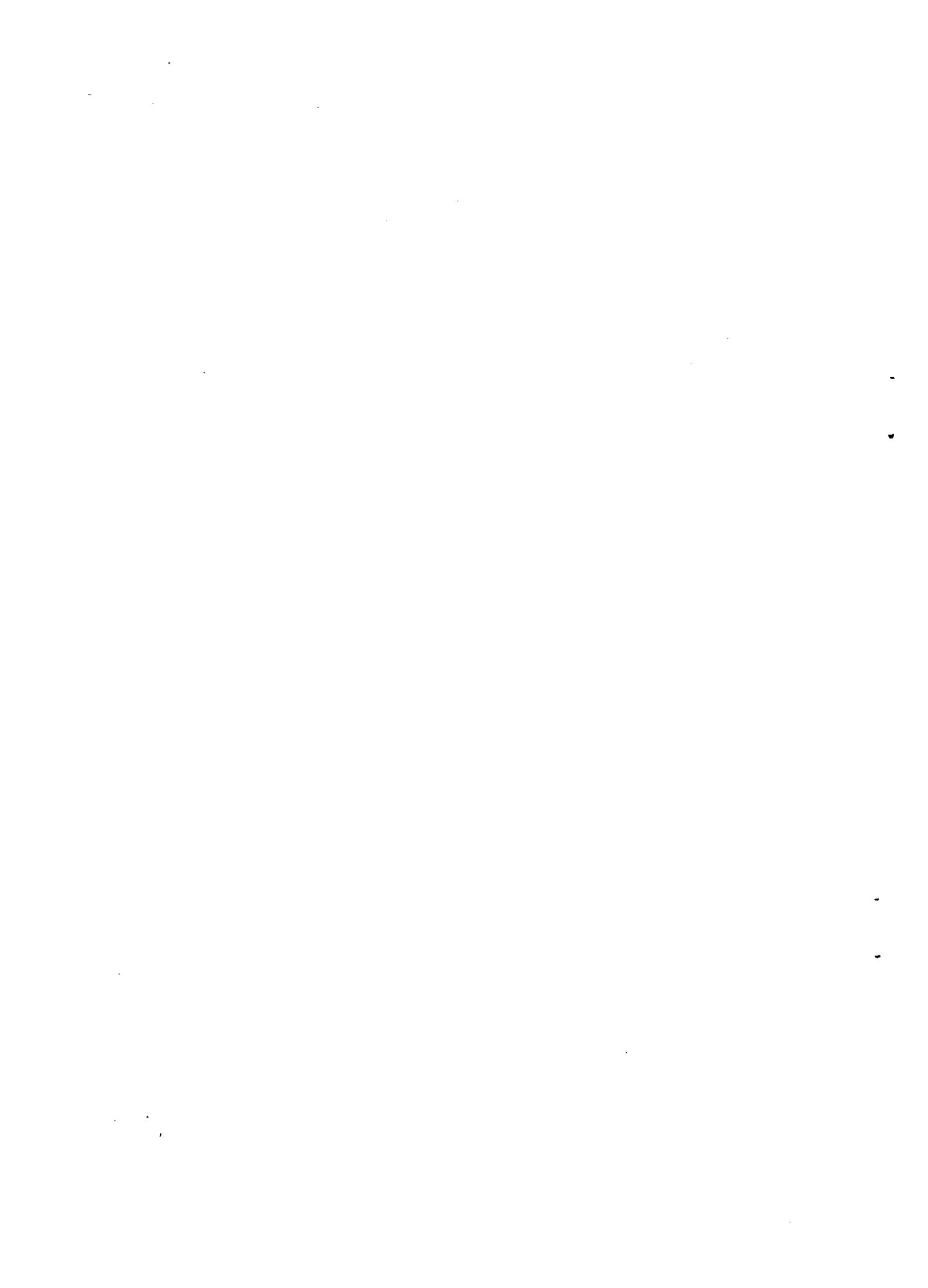
① 統一問題 解決의 長期性

② 北韓共産主義의 動向과 展望

③ 우리의 姿勢

우리는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達成하기 위하여 끈질긴 努力과 忍耐로 南北對話를 繼續 推進해나가야 할것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金日成의 赤化統一革命의 野慾과 誤判을 어떻게 事전에 防止하며 緊張이 高潮되고 있는 不安定한 體戰狀態에 놓여 있는 韓半島에 어떻게 平和를 定着시키며 情勢와 條件을 어떻게 有利하게 造成해 나가는가하는 問題로 歸着된다.

結論的으로 韓半島에서 平和統一을 指向하며 南北對話를 促進시키기 위하여는 間接的으로 우리는 國民總和로 國力과 強力한 安保體制를 구축함으로써 北韓의 武力挑発과 赤化統一의 路線을 對話 接近으로 軋換시킬것이며 直接的으로는 外交面에서 四大強國에 依한 東北亞 安保會議와 國際平和軍의 창설 우리 提案인 相互不可侵 協定의 締結과 遵守를 위하여 非武裝地帶의 平和的 目的利用等으로 方向을 取하며 80年代를 向하여 平和統一의 길로 前進을 다짐하여야 할것이다.



第二部 論 文

(1) 統 一 에 의 길

..... 金 永 声 (23)

(2) 北韓社會의 問題點

..... 朴 一 聖 (37)

(3) 統一을 爲한 對備

(統一理論의 一般的 展開과 그 問題點)

..... 具 本 泰 (49)



남북대화의 현안문제점과 대책

— 統 — 에 의 길 —

金 永 声



「統一애의 길」

(一) 序 言

(二) 南北對話

(三) 統一을 위한 對備

(四) 結 論

(一) 序 言

南北統一은 우리 民族의 團結을 念願이다. 7·4 共同聲明이

발표된지도 어인 2年, 當時 興信우에서 당장 統一이 이루어 지게

나 하는듯 性急한 期待를 걸어보는 國民들도 적지 않으나 南北對

話는 이렇다 할 實質的인 進展이 없이 걸만 맴돌다가 이제 그나

마도 膠着狀態에 빠져 있는 現實이다. 더욱이 8·15 저격사건의

로 다시금 그 正체가 드러난 北韓의 對話 否定的, 平和 否定的

暴力主義 路線은 祖國統一 오늘의 狀況을 더욱 암담케 한다.

그렇다고 우리는 祖國統一에 대한 信念과 統一課業을 拋棄할 수

는 없다.

무릇 우리가 살고있는 韓半島에 있어 既存의 것이, 다 必要한것

은 아니다. 말하자면 必要한데 없거나 不足한 것이 많음을 쉽게

생각해 낼수 있다. 우리는 必要한것을 간절히 찾고 있다.

그런데 그 問題는 必要의 需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不足

하다는 데 問題性이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切實한 問題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民族에게 있어 必要하고도 切實한 所望은 自由, 平和, 繁榮, 福祉의 民族統一이다.

이 自由, 平和, 繁榮, 福祉의 民族統一은 우리 民族의 切實하고도 永遠한 念願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그것들은 좀처럼 우리에게 가까워 지지 않을뿐 아니라 오히려 멀어져 가는 느낌마저 들 정도인 것이다.

이와같은 고로 유난히 自由 平和 繁榮 福祉의 民族統一은 強調되는 것이다. 強調되고 高調된다는 그 自体는 必要하고 切實한데 그래서 우리가 간신히 찾건만 도우지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統一의 問題는 簡單치 않다는 것을 쉽사리 알수 있다. 要컨데 平和的 統一을 우리 國民과 政府가 아무리 熱望한다 하더라도 北韓이 이에 應하지 않거나 또는 이에 應하는 척 하면서 實際로는 武力赤化 統一戰略을 實現하려고만 한다면 韓半島의 平和的 統一은 거의 不可能한 것이다.

그러나 拋棄할줄 모르는 우리의 끈질긴 平和統一 追求와 그를 위한 착실한 對備는 期必코 北韓으로 하여금 赤化戰略이 無謀하고 또 不可能하다는 것을 스스로 認識할 날이 오고야 말것이다.

(二) 南 北 對 話

南北對話는 確실히 韓半島에서 그 어떤 「새로운 體制」를 形成하기 위하여 그 出發點을 찾기 始作하였다고 할수있다.

「새로운 體制」라는 것은 다른말로 表現한다면 「韓半島 平和體制」의 形成이라고 할수 있다.

어떻던 1972年7月4日의 南北共同聲明은 南北關係의 새로운 轉機를 마련하였다. 卽 「雙方은 祖國統一의 原則으로서 自主的 解決, 平和的 方法, 思想과 理念, 制度의 差異를 超越하는 民族的 大團結을 다짐하고, 相互간 緊張狀態를 緩和하기 위하여 中傷, 誹謗과 武力挑發을 하지않고 南北사이의 多方面的인 諸般交流의 實施와 赤十字 會談의 成事를 위하여 積極協助를 하는데 合意」한 것이다.

이러한 7·4 共同聲明이 있는지 2年이 지난 오늘까지 南北關係에 있어서 設設하게도 별로 特記할 만한 實質的인 改善은 없었다고 評價하지 않을수 없다. 特히 具體的으로 合意되었던 相互 中傷, 誹謗의 中止(第2次 南北調節委 共同委員長 會議에서 合議하여 1972年11月11日 發効)도 잠시 遵守되었을 뿐 北韓側이 먼저 이를 破棄함으로써 지금은 合意以前 狀態 못지않게 相互 中傷과 誹謗放送이 進行되고 있다.

그리고 南北調節委員會는 3次의 共同委員長 會議와 13次의 共同委員會 本會議以後 이제 1年이 넘도록 다시 本會議도 再開 못하고 膠着狀態를 벗어나는데중 지난 9月21日 南北調節委 第8次 副委員長 會議가 8·15 저격사건 以後 처음 열렸다.

마찬가지로 南北赤十字 會談은 總7次의 本會談을 거쳤으나 아무런 實質的인 成果를 거두지 못했으며 그나마 會談自体마저도 1973年 7月11日과 12日의 7次會談을 마지막으로 近1年동안 完全 膠着狀態에서 헤어 나지 못하고 있던중 南北赤十字 第4次 實務會議가 25日 午前 板門店 中立區 監督委 會議室에서 열리기는 하였다.

말하자면 「나는 北韓共產主義者들에게 한시 바빠 民族의 良心으로 있다.

다. 祝辭을 遙해 平和統一을 위한 三大 基本原則을 다시 한번 밝힌바 더욱 最近 卽 第29週年 光復節을 맞아 林正熙大統領은 그의 慶 定の 縮結을 提議했었다.

하의 1月18日 朴大統領은 記者會見을 통하여 南北 相互不可侵 協 또한 韓國은 今年에 들어서서 6·23 宣稱의 原則을 더욱 具體化 다」는 것이다.

것으로서 南北韓의 「유엔」 同時招請과 同時加入을 反對하지 않는 北韓이 韓國과 같이 國際機構에 參與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는 神의 立脚하의 相互誠實과 忍耐으로써 南北對話에 臨해야 될뿐 아니라, 內政干渉을 하지 말고 侵略하지 말아야 하며, 또 7·4 共同聲明 精 「祖國의 平和統一은 民族의 至上 課題라는 것과 南北韓은 相互 南北關係에 直接 관련되는 5 個項은 다음과 같다.

卽 朴大統領의 6·23 特別宣稱은 7 個項으로 되어 있으나 그中 기에 이르렀다.

對北政策을 再整備 調整해서 進一歩하여 1973年 6·23 宣稱을 내 이 와 같이 두갈래의 南北對話가 不進한 가운데서도 韓國은 統一 및 는 것 같은 느낌을 준 것도 事實이다.

前半期를 보내온 現在의 南北關係가 甚히 悲觀的인 전철을 誘發하 는 말한 것도 없이 北韓에 의한 武力挑發이 감자기 激化되어 1974年 南北對話는 近一年間 中斷되고, 한편 相互 中傷, 誹謗放送의 再開

되돌아와 7·4 南北共同聲明과 6·23 平和統一 外交宣言의 基本精神에 立脚하여 祖国과 民族의 安寧을 爲해 南北對話를 조속히 正常化하고 平和를 定着시키는 데 誠美한 努力을 기울일 것을 強力히 促求한다」고 強調하고 이어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祖国 統一은 반드시 平和的인 方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 번 強調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誠美하게 追求해 온 平和統一의 基本原則을 明白히 陳明하고자 한다」면서 「첫째, 南北은 相互不可侵 協定을 締結,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켜야 하며, 둘째, 南北對話를 誠美히 進行시켜야 하며 南北間의 相互門戶를 開放, 多角的인 交流와 協力等으로 相互信賴를 回復해야 하고, 셋째, 이 바탕 위에서 公正한 選舉管理와 監視下에 土着人口比例에 의한 南北韓 自由總選 舉를 實施하여 統一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要컨대 7·4 共同聲明, 6·23 特別宣言, 1·18 提議, 今般 8·15 宣言, 即 平和統一을 위한 三大 基本原則의 陳明을 어느 하나도 例外없이 平和共存 原則을 通한 새로운 平和統一 政策의 표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韓國의 새 統一政策은 南北의 自由로운 合意와 平和的 方法을 통한 統一達成에 그 根據을 두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의 統一政策은 統一이 이루어질 때까지 平和共存 原則下에서 對話, 交渉, 協力を 통하여 漸進的으로 緊張을 緩和하고 信賴를 回復함으로써 戰爭再發을 防止하고 다른 한편 統一 前提인 그 基礎를 構築해 가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2) 새로운 統一概念의 創造를 위해서 그 概念의 摸索과 그 定立이 必要하다.

왜냐하면 統一概念의 如何에 따라서 統一이 더욱 어려워질수도 있고 또는 統一이 더욱 쉬워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傳統的 統一概念인, 一方的이고 強制的인 統一과 南北의 合意에 依한 自發的 統一, 그리고 韓半島의 中立化 統一論의 概念으로서의 統一에의 길은 더 흐려지고 더 어두어져 더 멀기만 하다. 또는 復古的, 非歷史的, Mosaic的 統一概念도 不可能한 것이다.

따라서 모자이크와 같은 異質體의 統一이 아니라 同質體로서의 單一構圖的 統一이 바람직하므로, 새로운 統一概念은 過去指向的 現狀維持的 이어서는 안되며 未來指向的 歷史創造的 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떨어져 살면서 서로 反目하는 Separer 狀態에서 결에서 나란히 조용하게 사는 Rapprocher 狀態를 거쳐 함께 합쳐서 사는 Ensemble 狀態로의 自然스러운 統一方向을 摸索해야 할 것이다.

몇컨데 從前의 豫想되는 必要值數 플러스 豫想되는 必要值數는 한결같은 固定值數가 된다는가 하는 式의 傳統的 統一概念이 아니라 即 豫想值數와 必要值數가 합쳐 從來的 固定值數 아닌 豫想값

의 值數마저 감안하는 가운데 어떤 值數를 만들어 내는 그런 式의 統一을 이른바 새로운 統一概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A + B = C$ 가 된다는 그런 觀念이 아니고 $A + B =$ 곧바로 C 가 아닌 어쩔수 없는 流動狀況에서 나타나는 豫想밖의 值數마저 걸드리는 가운데 그를 감안한 一定值數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말하자면 新統一의 方向인 Nouvelle unification 을 말 함이며 또는 새로운 國民形成의 方向인 Nouvelle Construction de la nation 이라는 새로운 統一 概念으로 定立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獨逸式 統一概念에서 많은 시사를 삼아야 할 것 같다.

即, 그것은 「小步政策」(Kleine Geschrittene Politik)을 말하는 것으로서, 例컨데 可能한 分野로 부터 한걸음 한걸음 忍耐性있게 接近할 수 있는 方向으로 나아가 이 成果들이 쌓이고 쌓이면 적은 발작 걸음인 Petit pas에서 중간 발작 걸음인 Pas moyen으로 이것이 다시 쌓여 큰 발작 걸음인 grand pas가 되는 小步政策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가진 말많은 「混線音」을 내고 있어 強力한 「對話態勢」를 갖추기 위해서 体制의 改革 整備를 必要로 했던것 같다. 卽, 저네들은 一絲不亂하게 「하나의 입」을 통해서 南北對話에 對峙하고 있으나 그동안 우리네는 「3千萬의 입」을 통한 不協和音으로 對話에 臨한 셈이었다는 것이다.

쫓긴대 우리는 國權을 守護하고 우리의 生存을 지키며 平和統一을 追求하기 위해서 戰略的 体制과 組織을 가할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서 「体制對 体制의 對決」로 또는 「組織對 組織의 對決」態勢를 갖추어 나가는 길만이 統一을 위한 對備의 길이 될수 있다 하겠다.

한편 우리는 높은 主体性을 發揮하여 거센 國際權力政治의 挑戰에 對峙하고 南北對話를 積極 推進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수 있는 國力(Notional Power)을 가져야 함은 再言을 要하지 않는다. 國力の 保障없는 主体性과 共存的 競争은 砂上樓閣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國力の 가장 主要한 部分은 經濟力과 國防力이다.

우리는 北韓과의 對話 交流의 過程에서 諸分野에 걸쳐 優劣을 比較하게 될것인바, 그때 우리는 自由民主主義 体制의 優秀性을 誇示할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를 保衛할 수 있는 能力을 確保하지 못하고서는 北韓과의 對話를 自信있게 이끌어 나갈 수 없다.

그러한 意味에서 우리는 國力の 劃期的이고도 加速的인 培養을

위해 總力を 傾注해야 할 것이다.

(四) 結 論

(1) 現實과 自己利害는 맞선다. 좀 섭섭한 말이지만 우리는 統一志向의 民族的 將來보다 現實的 自己利害와의 打算이 더 切實해 지는 民族이 되고 말았다.

말하자면은 統一보다는 現實的 利害意識에 더 銳敏해져 統一后에 닥칠 그 各分的 副作用論을 앞세워 이만 그대로의 現實的 持續을 더 바란다든 말이다. 卽, 現在의 地位를 喪失할 것을 두려워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分斷國의 悲劇을 悲劇으로 意識하지 못한데 緣由된다.

우리의 悲劇意識의 有無가 統一 霧囿氣에 미치는 影響은 실로 큰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分斷國으로서의 悲劇意識을 아로새기고 國際與論을 우리에게 有利하게끔 이끌기 위하여 繼續 統一戰略에의 Initiative 를 쥐고 겁내지 말고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漸進的으로 끈질기고도 풀기차게 緊張緩和와 交流增大를 모색하여 可能한데서 부터 조금씩 조금씩 우리 社會에 미치는 影響을 考慮해서 크게 惡影響을 끼치지 않을 程度로 小規模의 接觸과 交流를 試驗的으로 되풀이 해가며 그 影響과 反應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反應이 좋지 않으면 中斷하거나, 더욱 規模를 줄여 보고 괜찮겠으면 조금씩 더 넓혀 나가야 할것이다.

어떻던 南北對話는 一般的인 和解趨勢에 따르는 새로운 國際情勢의 變化에 適應하고 同族相殘의 비극을 未然에 防止하기 위하여 不可欠한 것이며 아울러 平和的으로 統一 되어야 할 將來的 展望을 갖기 위해서도 마땅히 進行시켜 나가야 할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南北對話는 國民의 統一念願을 實現시켜 나가기 위한 現實的인 代案의 하나이다.

(三) 統一을 위한 對備

激動하는 韓半島의 周辺情勢는 우리의 安保와 平和統一에 直接 間接으로 影響을 미치고 있다.

때는 必야흐로 兩極化된 「이데올로기」時代에서 多極한 國利追求의 時代로 접어 들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國際狀況의 修正을 意味한다.

왜냐하면 核武器의 冷酷한 現實性은 不可避的인 平和共存性과 더불어 列強들의 實力平準化 傾向에 따르는 多極性的 樣相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마치 群雄이 割拠하는 春秋戰國時代를 방불케 한다. 따라서 現在의 世界秩序는 兩極과 多極, 또는 兩強과 四強 또는 五強이 풀려스된 「混迷의 體制」를 形成하고 있다. 그러므로 平和共存을 위한 國際情勢의 和解趨勢는 列強들의 實利追求를 위한 새로운 樣相에 不遇하다.

要컨대 列強들의 實利追求의 競爭은 國際緊張 緩和라는 美名下에

第3 國이나 中小國家의 國利를 犧牲시킬 可能性마저 增大시켜 가고 있다. 말하자면 오늘의 國際的 狀況의 修正이 中小國家들에게 있어 오히려 새로운 挑戰的 要因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即, 우리에게 있어 國際情勢의 挑戰이 아닐수 없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南北對話의 繼續推進이라는 課題를 안고있다. 7·4 共同聲明 以後 南北對話의 有力한, 두 Channel 인 赤十字 會談과 더불어 南北調節委員會를 통한 南北對話는 한때 本格化되기도 하였으나 結局 平和를 指向하는 對話의 進行을 忌避하는 去年 8月28日의 北韓側의 聲明으로 近1年間이나 小康狀態를 維持하다가 8·15 저격사건 이후 처음으로 지난 21日 南北調節委 第8次 副委員長 會議과 25日 南北赤十字 第4次 實務會議가 열리기는 하였다. 그렇다고 이러한 南北對話가 곧 바로 平和를 意味하는 것으로 縮覽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南北對話는 理念과 體制를 超越한 民族의 立場에서 祖國의 統一을 實現하려는 하나의 努力的 構想에 不過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는 國際情勢의 挑戰과 南北對話의 再開 및 그 推進이라는 두 課題에 能動的으로 對処하기 위하여 國內的인 體制의 整備 強化와 그 改革의 必要를 느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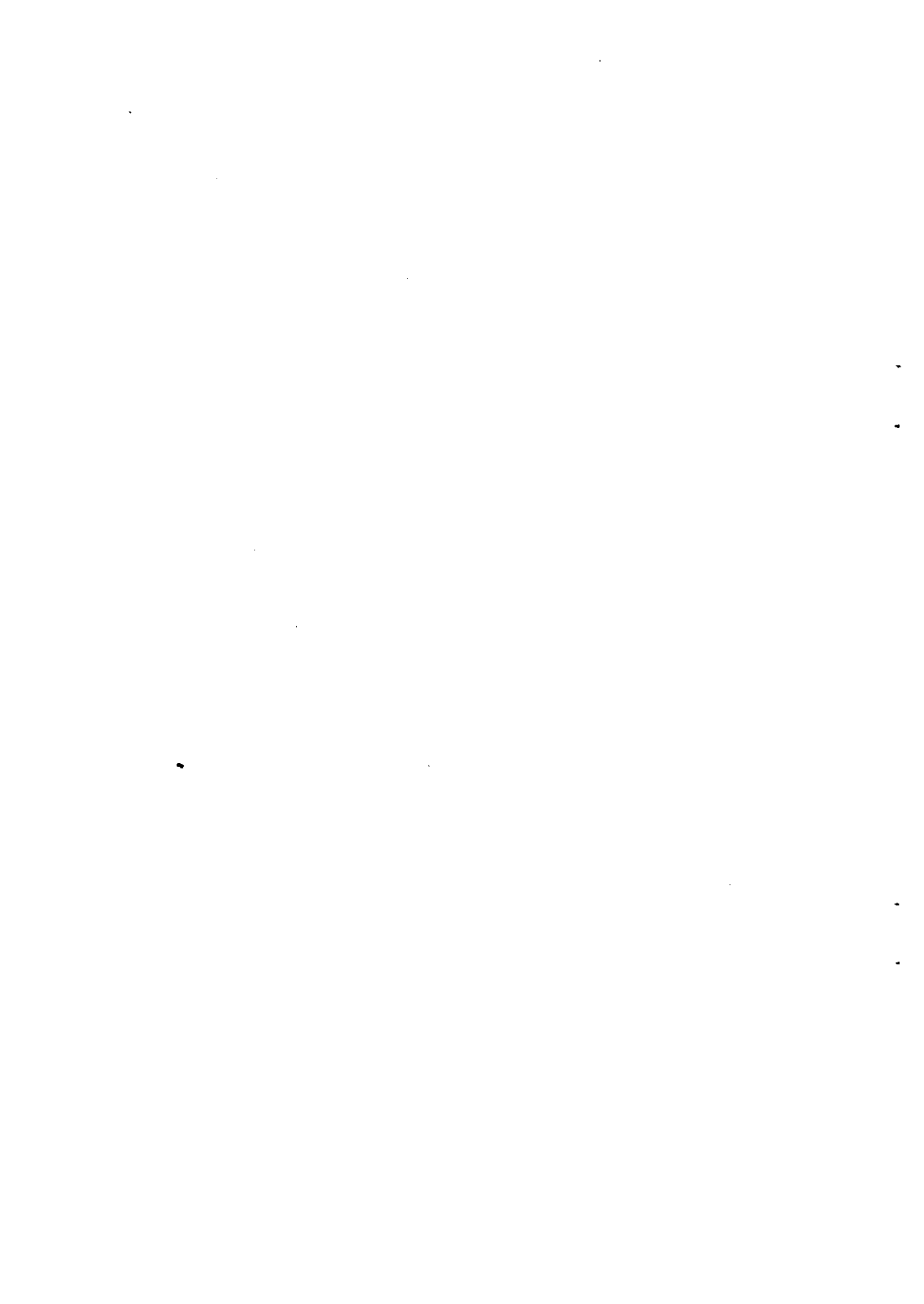
따라서 이제까지의 過去的인 反共體制를 止揚하고 統一에 對備하는 「對話態勢」 即 「統一體制」의 構築이 수반되지 않을수 없다. 말하자면 「對話있는 對決」에 있어 北韓側은 오직 「입은 하나」 밖에 없어 「單一音」을 내고 있다면, 우리側은 「3千萬의 입」을

統一에의 길은 멀지 모르나 그 길은 탄탄하고 믿을 수 있는
더 確奘한 길이 될 것이다.

남북대화의 현안문제점과 대책

—北韓社會의 問題點—

朴 一 聖



北韓社會의 問題點

目 次

1. 序 論 (問題의 提起와 目的)
2. 北韓社會의 基本形態와 그 問題點
3. 北韓社會의 變數別 矛盾點
◎ 參考：北韓經濟의 沈滯相과 問題點
4. 北傀의 矛盾打開戰略과 問題點
5. 北傀의 最近動態와 그 徵候
◎ 參考：西方側의 對共戰略史例와 우리의 可能性
6. 結 論

1. 序 論

잘 아시는 바와 같이 南北對話의 經驗과 周邊情勢는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追求하는 過程에서 南北韓은 于先 過渡的으로나 마 雙方間의 平和共存을 制度化한 韓半島에의 平和定着을 妄求하고 있다. 이와같은 土台위에서만 雙方은 對話와 交流를 通한 相互理解와 協調를 增進시킬수 있을뿐 아니라 民族의 同質性을 回復하고 겨레의 念願이자 인류의 소망인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에 보다 科學的으로 接近할수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따라서 最近 國內외의 많은 學者들은 우리政府의 6·23 宣言과 不可侵協定締結 提議를 “過程으로서의 統一”(unification as process)이라고 높이 評價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우리政府의 提議를 逆統一的인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를 拒否할뿐 아니라 反對로 저들의 暴力革命 路線에 기초한 戰略戰術的 欺瞞術策인 平和協定, 大民族會議 政治協商會議等을 偽裝提議하여 世人들을 현혹시키면서 이제는 美軍의 駐屯與否를 莫論하고 特殊戰法으로 우리 政府를 打倒하고 赤化統一을 促進할것을 當面課業으로 設定 지금 갖은 奸計를 劃策하고 있다. 그의 對應策으로서 政府는 모든 分野에 걸쳐 應分の 措置를 取하고 있는 것으로 믿으나 其中 가장 力點을 두는 곳이 國民總和인것 같다. 이것은 극히 當然하며 반드시 이룩해야 할 初步的인 課業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指導的 位置에 있는 여러 碩學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進一步하여 過程으로서의 統一에 最大의 障礙가 되는 北魏集團의 存在理由와 樣式과 그 意圖를 形成하는 北韓社會體제의 常數와 變數를 科學的으로 分析評價하고 저들의 獨裁體制와 侵略體제의 變動可能性을 珍斷한 기초위에서 보다 長期的이며 高次的인 對應策을 追求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것으로 안다. 그리고 本忠南大學校 統一問題研究所 亦是 이러한 使命意識과 目的意識에서 本課題의 發表를 本人에게 위촉한 것으로 안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이 重大한 課題를 맡게된것을 無上의 榮光으로 生覺한다. 그러나 잘아시는 바와같이 至今까지 우리나라에선 宣傳을 위한 北韓學은 研究되었어도 統一을 爲한 學術的 北韓學은 定立되지 못했다. 그 때문에 여러 碩學任들께서는 지금부터 本人이 發表할 內容을 研究의 結果라기 보다는 研究를 爲한 資料의 提共이며 問題

의提起이며 本 “세미나”의 中心議題인 다음 課題의 서설로 말
아들여 주시면 感謝하겠다.

따라서 本 課題에 있어서는 概略的이나마 北韓社会의 基本実態와
展望 그리고 우리의 可能性 診斷을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 그리
고 學術的으로 共產主義 北韓社会의 問題點에 接近할수 있는 方法
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共產主義社会의 變動可能
性을 比較的 經驗主義的 立場에서 理論構成을 試圖했던 重要 學者
들의 分析 結果를 資料로 삼았다는 것을 미리 말씀 드린다..

※ 學 者 名

o T. Parsons ; 社会体系論 (機能主義的 立場)

o R. Danrendorf ; 社会葛藤 理論

o Amitai Etzioni ; 巨視社会学

o H. Gorden . Skilling ; 東歐

o Z. Brzezinski > 교차적 體制 比較

o SP. Huntington

其他 共產圈 專門家

o Rostow

o 지 나 스

o 나마이어

2. 北韓社会의 基本実態

(常數와 變數)

共產主義 社会란 例外없이 全体主義社会라는 事實을 우리는 너무

나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共產主義 社會가 經驗하게 되는 産業化 都市化는 西方側의 모든 社會가 近代化 過程에서 共通的으로 볼수 있었던 것과 비슷한 現象을 創出하고 있다는 것이 西方側 學者들의 合意인것 같다. 卽 産業化 過程에 따라 이들 社會도 官僚制度化의 傾向을 表出하며 機能의 分化現象에 따른 分業을 尊重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社會는 全体主義社會가 갖는 非合理性에 對処하여 産業社會의 合理的인 慣行을 導入하고 있으며 專門的 技術 내지는 管理能力을 가진 에리트層의 社會的 進出이 누드러지고 이들은 점차 行政分野에만 아니라 權力 에리트의 接近 可能性도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權力層은 構造的으로 Red 와 expert 로 形成되는 傾向이 있다. 따라서 支配層과 大家問의 關係類型에도 變化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成果에만 關心을 두던 執權層을 能率에 神經을 쓰게 되고 統制와 억압 또 이데오르기에 의한 規範的 強制보다는 物質的 자극에 依한 誘因과 說得 또는 同意획득을 爲한 權限 委任現象까지 發展되고 있다는 것이다. 特히 유고의 경우 數많은 利益集團이 政治過程에 投入되어 政治의 現制度로 한몫을 담당하여 委任體制를 瓦解시키고 自由 競爭的 市場制度가 부활되는 現象을 보이고 있다. 卽, 自由放任的 社會主義란것이 그것이다. 이로서 大家의 消費 패턴이 달라지고 脫이데오르기의 傾向이 一般化되고 있으며 革命보다는 安樂椅子를 追求하는 價值體系가 形成되고 있다. 그와 同時에 國際關係에 있어서 그들은 東西平和共存의 制度化가

当然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以上の 現象은 어디까지나 東歐 및 蘇聯의 경우에서 抽出한 것이라는 事實을 銘心해야 한다. 美中接近을 契機로 亞細亞 4 強國에도 平和共存이 制度化 되가고 있는것은 事實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動因이 되어 當場 北韓에도 東歐와 같은 自由의 바람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어느 將來에 가서는 北韓에도 이러한 自由의 바람이 불지 않겠는가 하는 希望的 示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 왜 北韓에는 아직 이러한 自由의 바람이 일어날수 없는가 여기서 우리는 北韓의 基本狀態把握의 첫 단계로 共產主義에 있어서의 北韓의 歷史的 位置부터 考察해볼 必였가 있을것 같다.

가. 北韓社會의 歷史的 位置

金日成에 의하면 北韓社會는 社會主義 建設段階에 놓여 있다고 한다. 共產主義의 變遷過程에서 北韓社會의 歷史的 位置를 보면 이것은 여러군에게 配布된 資料에서 찾아볼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볼수있는 바와 같은 北韓社會는 確實히 共產社會에서도 后進的 位置와 敎條主義的 屬性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段階의 屬性을 30 ~ 40 年代의 스탈린主義와 40 ~ 50 年代의 毛澤東主義를 敎條的으로 모방하고 있다는 것이 그 特徵이다.

學說의 東西間 接觸史例에서 보아온 바와같이 西方欄은 그들과의 對話에서 얻은것 보다는 잃은것이 많았다. 이 敎條的 屬性과 落后性은 아직도 固守하고 있는 것이 金日成일진데 이것이 오늘의 南北對話의 基本的 障礙가 되는 것입니다. 이 屬性을 認識하기

爲해서는 現 北韓社會의 基本形態와 本質을 分析해 보아야 하겠다.

나. 北韓社會의 基本形態와 常數와 本質

이 스탈린主義的 社會主義 建設段階에 있는 北韓社會의 基本形態를 沿革的으로 考察하면 이것은 스탈린의 一國社會主義論에서 出發된 것이다. 스탈린의 一國社會主義論은 그의 革命戰略과 政治的 意圖를 反映한 것으로서 스탈린은 여기 關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目的을 達成하기 爲해서는 一國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 獨裁를 堅固히 하고 그것을 모든 나라의 帝國主義 타도를 爲한 基地로 使用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革命은 한 나라의 國境을 넘어서 퍼진다. 여기서 明白한 것은 스탈린은 蘇聯을 一國社會主義 形態로 꾸리고 이것을 世界革命의 基地로 삼자는 것이었으며 革命基地로서의 一國社會主義 形態는 對內獨裁와 對外侵略을 그의 常數로 삼고 있다는 事實이다. 그러면 金日成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1964. 2. 27 黨年委 4/8 全員 會議에서 그는 우리 黨은 解放 直后부터 北朝鮮을 우리 革命의 基地로 規定하고 政治 經濟 軍事의 모든面에서 이 革命基地를 百方으로 強化하는 路線을 堅持해 왔다. 北半部의 強力한 革命基地는 祖國統一의 가장 偉大한 担保이다. 이것은 스탈린의 革命基地論을 그대로 表現한것이다. 金日成의 北韓革命基地論에는 至今까지 조금도 變함없이 되풀이 되고 있다. 지난 9月9日의 朴成喆의 演說도 이것을 세삼 強調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北傀는 至今 金日成 獨裁強化와 南侵力量 強化에 광

나.北韓社會의 從屬變數

“지라스”에 依하면 共產體制 內部變動에 直接 影響을 주는 變數에는 權力構造, 이레오르기, 所有權 등이 있다고 한다. 敎條主義的 段階에서는 最高統治者가 이 3大 變數를 独占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相互補完的이며 相互依存的이다. 그러나 이 亦是 初期에는 繩機能을 하나 長期化되면 점차 逆機能을 하게되며 마침내는 敎條主義 體制의 變質을 促求한다는에서 우리의 關心을 集中케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北韓社會의 이 3大 從屬變數를 具體적으로 分析해 보기로 한다.

(以上 「一部세미나」 內容中 筆者 要旨 참조)



남북 대화의 현안문제점과 대책

一 統 一 을 為 한 對 備 一
(一統理論의 一般的 展開와 그 問題點)

具 本 添



1. 序: 科學的 統一理論의 必要性

사실 統一처럼 우리의 친숙한 概念도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의 境遇 統一을 생각하는 느낌이 제마다 다르고 또 政府의 統一政策에 對하여도 單一한 國民의 理解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統一이 공구적으로 國民의 기반위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統一된 國民意思가 當然히 發露됩니다. 예를 들어 「國論統一」, 「國論堂化」 등이 이러한 目的으로 使用되는 口號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口號를 접할 때 마다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느냐는 疑向이 남습니다. “平和的으로 共存해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나?” “南北문제들을 위해 統一된 國民의 姿勢가 發露된다고 하는데 對語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發露에 적용하는 것인가” 는 등의 疑問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우리 周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疑向이 풀리지 않는限 統一에 關한 眞正한 國論 統一은 힘듭니다.

統一이라는 目標下의 展開되는 諸般現象은 우리의 切實한 世로운 經驗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世로운 現象을 理解하고 적용할 수 있는 論理的인 知識體系를 갖고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切實한 知識體系를 갖수의 못한 狀況下에서 世로운 統一現象을 理解하려 할 境遇 이 現象自体의 對한 疑問과 混向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論理的인 知識體系가 서 있지않은 境遇 지극히 當然한 現象마저도 現象과 關係이 없는 다른 知識體系를 通過 認識할 수 밖의 없

기 때문입니다. 統一에 關한 疑向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저는 統一의 疑問을 이같은 새로운 現象을 認識할 수 있는 論理的 知識體系를 수립하므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統一에 關한 知識을 論理的으로 體系化 한다는 것은 새로운 統一理論을 創造的으로 形成하는 作業을 意味합니다.

오늘날 科學理論의 一般의 特性은 現象을 說明, 理解하고 이를 豫測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統一에 關한 科學理論을 形成하므로써 統一現象 一般에 關한 共同의 理解기틀을 마련하고 아울러 未來의 統一의 方向性を 豫測할 수 있다는 論理가 섭니다.

本 主題는 이같은 科學的 統一理論을 形成하기 爲한 事前作業으로서 統一에 關한 몇가지 「연역적, 合理的理念 모델」을 提示하는 데 目的이 있습니다.

2. 基本概念: 統一과 統合

科學的 統一理論 形成을 爲해서는 우선적으로 統一概念에 關한 새로운 認識이 있어야 합니다. 己往의 軍事的, 武力的 또는 領土的 統一概念은 오늘날 우리가 處한 現實과는 거리가 멍니다. 이는 韓半島 統一의 基本前提가 平和的 方法을 통하여 民族을 單一化 하려는 努力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統一」은 하나의 理念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습니다. 民主主義가 하나의 統治理念이듯이 또 「獨立」이 한때 우리의 民族理念이듯이 統一 역시 하나의 高度의 民族理念이자 統治理念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 反面에 南北韓 間에 協同이나 對話 또는 交流等은 理念으로서의 統一을 平和的 方法을 통해 實踐하는 論理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韓國의 統一에 對해 關心을 갖는 많은 國內外 學者, 專門 家들이 理念으로서의 統一과 이러한 理念을 「實踐하는 過程으로서의 統一」 即 「統合」이라는 概念을 區別하려는 努力을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우리가 目標로 하는 科學的 統一理論은 보다 實踐的 論理에서 있는 「統合」을 中心으로 展開시킬 必要가 있습니다.

3. 統一接近方向: 「안」에서 「밖」으로

그러면 南北韓이 處해있는 基本的 狀況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南北問題가 處해있는 基本的 狀況은 國際的 共存秩序와 南北 關係의 二重構造로 集約할 수 있습니다. 共存秩序라 함은 韓半島 周邊의 強大國間의 力學構造가 指向하는바 外的인 狀況을 지칭합니다 반면 南北間의 二重構造라 함은 南北이 處한 基本狀況으로서 分斷된 同一民族으로서의 關係와 相互다른 理念과 體制를 갖춘 關係를 말합니다.

오늘날 強大國政治의 意味를 切感하고 韓半島 周邊 強大國의 政策 方向에서 統一의 關鍵을 發見하려는 努力은 이상의 外的狀況에 基盤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韓半島의 平和的 統一課業 達成을 民族內部의 問題로 국한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南北韓에 현존하는 異質性을 해소하려는 努力은 內的인 狀況에 基盤하고 있는 것입니다.

韓半島가 如何인지는 如何인지는 이같은 內, 外의 狀況은 모두 統一方向 모색에 있어 필수적인 考慮要素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認識해야 할 것은 外的 狀況 卽 國際的 共存秩序가 결코 韓半島 統一의 當否性을 提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基本的으로 韓半島 周圍의 共存의 秩序는 現狀유지의 基本前提下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소·일·중국 어느 나라도 現狀을 變更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自國의 國家利益을 追求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韓半島의 統一이 그들의 이러한 基本要求를 克服하지 않는 限 首肯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스스로 韓半島의 統一을 爲해 共同努力으로 努力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分明합니다. 이러한 外的 狀況을 감안할 때 韓半島 統一의 問題는 우리 民族 스스로의 課題이며 우리만이 그 突破口를 열 수 있는 것입니다.

南北韓 關係는 歷史的으로 同一한 言語, 同一한 文化的 背景속에서 南北이 하나로 살아왔다는데서 비롯된 民族的 同質性의 側面과 지난 4半世紀 以上 相異한 理念 體制아래 南北이 各各 生活해 왔다는데서 비롯된 異質的인 理念의 兩 側面이 있습니다. 이것은 南北韓 關係가 갖는 統一肯定的인 民族次元과 統一否定的인 理念次元이라는 二重構造的 性格을 말합니다. 이같은 相反된 構造的 相互 矛盾의 關係속에서 南北關係를 支配하고 있습니다. 南北關係는 이같은 二重構造的 構造에서 把握할 때 韓半島統一은 民族次元인 理念次元을 능가하거나 또는 造化시키므로서 或은 理念的 價值가 相對的으로 退色할 境遇 可能하다는 基本的 假設을 남깁니다.

결국 韓半島의 統一은 韓半島 内部의 理念的 對立을 극복하고 나아가서는 「안」으로부터 「밖」으로의 卽 韓半島内部에서 外部로 接近 造化시킨다는 方向에서 推進되어야 할 것입니다.

4. 統一을 위한 對策: 統一理論形成을 위한 論理的展開와 問題點

(1) 平和定着의 論理

이러한 立場에서 우리가 對處해야할 課題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南, 北韓이 平和定着의 論理를 實現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南北間 현존하는 戰爭위험으로부터 南北이 벗어나는 길이고 나아가서는 統一을 向한 基本前提가 되는 必須的인 課題입니다. 戰爭의 위험이 韓半島에 常存하고 相互가 相對方을 否認하는 狀況에서는 平和도 統一도 期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統一을 向한 過渡的 秩序로서 南北이 平和定着의 論理를 달성하는 路만이 唯一한 代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같은 南北間에 平和를 定着시키는 論理는 그 概念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껏 理解하던 “共存” 概念과는 몇가지 側面에서 區別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로 南北間의 平和定着의 論理는 오늘날 強大國間의 共存概念이 아닙니다. 強大國間의 共存概念은 核武器體系의 急速한 發達에 基因하는 人類과괴의 危脅으로부터 共生한다는 意味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南北韓의 境遇는 同一分斷民族을 平和的 方法을 通하여 재결합시킨다는 方向性을 지닙니다. 勿論 韓半島를 強大國 政治勢力이

상충하는 紛爭可能 地域으로 判斷할때 強大國間의 共存概念을 全的으로 否認하기는 힘들지만 韓半島의 境遇는 4半世紀 以上 分斷된 同一民族을 地域的, 政治的으로 再結合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側面이 보다 強調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國家間의 共存概念이 다음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國家間의 共存은 相互 獨立된 國體와 國民의 背景下에서 이루어지는 關係를 말합니다. 그러나 韓半島의 境遇 現實的으로 民族과 理念의 二重的 相反構造에 處해 있으므로서 分斷以後 已往에 存続해 왔던 南北韓의 相馳된 政治秩序를 수긍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南北이 統一을 向한 部分的인 秩序로 받아들일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할때 韓半島式의 平和定着의 論理는 統一을 向한 秩序이며 國家와 國家間의 共存과는 다음입니다.

셋째로 오늘날 一部 共產體制에서 主張하는 「平和共存」과 다릅니다. 특히 요즘 北韓이 主張하는 「平和共存」은 그들의 「統一總原理」와 밀착된 것으로서 궁극으로는 南韓內의 人民革命과 이를 通한 對南赤化를 위한 戰術的 口號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用語 自体가 풍기는 外형은 “共存”이고 “平和”이지만 그 實은 絶對論理에 基盤한것으로 赤化음에 戰術的 불과합니다.

여하튼 진정한 統一을 向한 韓半島의 平和定着의 論理는 北韓이 이를 拒否하는 限 이루어 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韓半島의 統一을 성급히 이룩하려 할 境遇 여기에서는 必然的인 危險이 따릅니다. 진정한 韓半島의 平和的共存은 北韓의 힘의 限界를 절감하고 그리고

그들의 絶對論理가 더 이상 實現不可能함을 認識하는 순간부터 始作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는 長久한 시간이 걸릴것이고 또 이 時間을 가능한한 앞당기기 위해서는 南北의 힘의 均衡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国力의 지속적인 뒷받침이 병행해야할 것은 勿論입니다.

(2) 協商의 論理 - 南北對話의 展開

統一을 對備키 위한 두번째의 課題는 어떻게하면 統一指向의인 協商論理를 展開할 수 있는냐는 것입니다. 協商의 論理는 韓半島 統一過程上 必然的으로 그치는 “場”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平和定着의 論理가 成熟하는 것이 統一의 前提가 되는 것과는 달리 協商의 論理는 平和定着 契機를 摸索하거나 또 이루어진 平和를 統一指向的으로 發展시켜 나가는데 있어 架橋的인 役割을 수행할 것입니다.

統一 實踐過程에서 提起되는 協商은 크게 두가지의 階-段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絶對論理의 背景下에서 이루어지는 協商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직접 목격하는 赤十字會談이나 調節委員會談等の 一聯의 協商을 포함합니다. 다른 하나는 絶對論理가 붕괴되고 平和定着의 論理가 成熟된 以後에 展開될 協商입니다. 最近까지 東, 西獨間에 이루어져 왔던 協商같은 것이 이 유형의 協商事例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같은 兩 協商의 類型은 基本立場에서 부터 協商目標, 內容, 協商에서의 台意基準, 協商戰術에 이르기까지 전혀 상이합니다. 絶對論理下的 協商의 境遇 協商에 임하는 南北韓은 共히 原則的이고, 名分的

인 基本立場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南北이 各各의 現体制 守護의 名分인 韓半島內의 唯一合法性을 配分하려 하지않을 뿐더러 設령 어느 一方이 이와 비슷한 意圖를 갖고있다 하더라도 이는 2 個韓國의 分斷永久化의 責任을 떠 맡아야 하므로서 구태어 不利한 冒險을 自招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狀況下에서 協商은 形式은 있어도 合意를 얻어 내기는 힘듭니다.

現代 協商理論의 大家인 F.A「이클레」에 의하면 이러한 協商 卽 形式은 있으나 合意內容이 없는 協商을 「合意에 関心없이 効果를 노리는 協商(effect not concerning agreement) 또는 「부수効果 開發協商」이라고 말합니다. 이 境遇는 선전이나 情報의 獲得 또는 相對方의 策力行事を 단념시키거나 속임수를 쓰기위한 目的等에 関心を 보이는 것으로서 오늘날 西万國家와 共產主義者들의 協商의 一이 이 類型에 屬한다는 것입니다.

南北韓間의 絶對論理下에 이루어지는 協商이 부수効果 開發協商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상황으로 봐서 도저히 合意가 이루어지기 힘들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境遇에도 協商이 이루어 진다는 點입니다. 特히 統一을 위한 잠재적 의사전달의 통로내지 接觸유지의 手段으로 協商을 하는것이 아니냐는 一部의 견해도 이와 一致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協商은 大部分 雙方이 緊張狀態下에서 이루어 지며 相對的으로 어느 一方이 不利해질 境遇 尙상 對話 決裂의 危脅이 手段으로 使用될 可能性이 있습니다. 지난해 8.28 김영주聲明은 代表的 例로 들 수 있습니다.

絶對論理下에서의 協商라는 달리 平和定着된 論理下的 協商은 實質問題 해결에 關心을 가질 것입니다. 相互 원칙적 戰略的 名分下에서 追求하는 絶對論理의 協商이 초기에는 對話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中國에서는 相互의 戰略的 目標의 相衡으로—이것은 絶對論理가 갖는 不可避한 結果이지만—對話不在까지 물고갈 危險이 있습니다. 이같은 境遇 일단은 어떤 形式이던 對話를 긴장완화의 手段으로 생각한 以上 이 對話가 决裂되면 처음의 긴장보다 더 격한 긴장을 초래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생길것입니다. 여기에다 또 韓半島의 戰爭防止와 긴장완화를 追求하는 周邊強大國들에 依해 南北韓에 對話繼續의 壓力이 加重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같은 점증되는 協商의 繼續의 必葦가 協商을 手段에서 目的으로 轉換시키며 目標로서의 協商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變萬의 戰略的, 名分的 기존 協商姿勢를 實質的 問題 해결 姿勢로 後退시킬 수 밖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래 協商自體의 論理가 平和定着論理를 이복할 수 있는 契機를 造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던 平和定着된 以後의 協商은 相互의 戰略目標을 後退하여 相互 實利 및 戰略追求가 병행될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協商의 內用도 己往의 「지연—결렬—보조제의」式으로 형식적 協商에서 부터 「제안—協商—타결」의 구체적 性格을 띠 것입니다. 이러한 協商은 보다 기술성 전문성이 강조될 것이고 絶對論理下에서의 이념성은 점차 退色할 것입니다.

協商의 主体는 어디까지나 協商要員입니다. 勿論 協商要員이 누가

되느냐는 別問題로하고 적어도 以上の 協商의 論理가 統一을 追求하는 過程에서 不可避하다면 이에 對處할 長期的인 協商要員을 養成하는것이 統一을 對備하는 길입니다. Eklo는 그의 國家間的 協商에서 오늘날의 協商 特히 共產主義者들과의 協商을 위해서는 全國民이 모두 協商要員이 될 必要가 있다고 主張합니다. 이는 모든 國民이 政府의 統一政策을 理解하고 統一된 國論을 바탕으로 努力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 다만 시급한 課題는 이같은 韓半島의 특수성에 맞추어 이러한 協商論理를 統一指向的으로 이끌어 나갈 보다 前衛隊的인 協商要員을 양성하는 問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協商要員의 概念이 定立되어야 함은 勿論 이에 따른 効果的인 양성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3) 接觸, 交流의 論理—過程으로서의 統一(I)

統一을 對備하기 위한 세번째의 課題는 南北의 接觸, 交流를 促하여 統一指向的으로 始作하고 또 維持, 擴大시킬 수 있는 論理를 展開하느냐 입니다. 南北間에 平和가 定着되고 相互 實利追求의 協商이 展開될때 그 具體的 對象이 되는 것은 接觸, 交流의 問題일것입니다. 南北韓의 광범한 接觸, 交流는 相互의 불신감을 해소시키고 잃어던 동질성을 회복할수 있습니다. 問題는 이러한 接觸, 交流를 統一指向的으로 誘導키 위한 對象과 方法을 決定하고 그 容易度 (feasibility)와 接觸의 우선順位를 판단할 수 있는 知識體系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흔히 接觸은 協商을 通해 合意만 하면 다된것으로 생각하기 쉽음

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接觸, 交流는 恣意를 通해 始作하는 것과 그것을 繼續維持하고 擴大해 나가는 것과는 別個의 問題입니다. 이는 南北韓의 接觸이나 交流가 단순한 國家間的 무역이나 個人間的 거래처럼 마음대로 중단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南北韓의 接觸, 交流는 基本的으로 統一指向에 그 方向性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령 始作은 쉬워도 그것을 유지 擴大시키기 어려운 境遇는 接觸對象으로 적절한 것이 못됩니다. 만약 시각된 接觸 交流가 중단될 때는 오히려 南北間的 갈등을 고조시키므로써 統一을 위한 努力에 장애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예' 처음부터 이러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南北의 接觸, 交流의 論理가 쉽지않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南北韓間에 接觸, 交流가 始作되고 維持, 擴大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세가지의 基本條件을 충족하는 境遇에만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첫째는 여하한 接觸, 交流의 境遇에도 그것이 어느 一方의 體制維持에 危脅이 되는 것일 境遇에는 接觸을 維持할 수 가 없습니다. 이것은 南北의 平和定着의 論理가 相互의 理念, 體制를 承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接觸, 交流에서도 必然的으로 體制守護의 立場이 擡起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무리 훌륭한 結合機能을 갖는 接觸이라 하더라도 어느 一方의 政治的 價值體系를 포함한 政治文化에 至극요인이 되는 境遇 接觸의 對象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체제수호에 관한限 接觸의 順位나 容易性은 어느 體制에도 影響을 수지않는 分野에서 相互 어느정도 양래가 可能한 分野의 願으로 이

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政治的인 것보다 非政治的인 것이 有利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南北韓間에 同質的인 領域일수록 接觸이 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동질적 領域이라함은 南北이 갖는 歷史的, 전통적 同一文化, 言語, 風習, 地理等이 關聯된 分野를 포함하여 共히 近代化 工業化를 指向하는 過程에서 提起되는 相互協力 分野를 말합니다.

셋째로는 統一指向的인 槪能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接觸, 交流를 統一을 向한 과정으로서 把握할때 이것이 窮極的으로 統合에 기여하는 측면을 말합니다. 흔히 기능주의論者들이 이야기하는 기능적 結合기능으로서 이것은 타 分野내지 타 領域으로 연쇄적인 接觸의 파급을 자극하고 촉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런 槪能을 가진 接觸일수록 統一의 參與度는 본것이 分明합니다.

以上の 세요소를 감안할때 南北間의 接觸順位나 接觸 容易度는 體制守護, 同質性, 統合槪能의 세 기준과의 함수관계로 把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問題는 이러한 함수관계들 실제 적용가능성에 비추어 여하히 그 細部기준이나 尺度를 構成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캐냐하면 이것은 統一을 向한 接觸理論을 형성할 수 있고 따라서 接觸戰略을 構想할수있는 理論的 「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南北間에 接觸理論을 구성하는데 있어 다음 몇가지의 方向을 提示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言及한대로 接觸의 概念을 澈인식하는 일입니다. 이는 南北의 接觸이 統合을 前提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試圖되고 維持, 擴大되어야 할 必妥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接觸의 對象을 명백히 할 目的으로 「接觸形態」의 새 概念을 設定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接觸分野라는 用語를 使用하는 境遇—예를들면 經濟交流, 체육交流等—그 概念이 너무크고 막연하므로서 具體的 對象을 지적하기가 어렵습니다. P.Haas 교수는 그의 기능주의 理論展開에서 接觸對象이 明白할수록 接觸이 容易하다고 말합니다. 어찌든 이러한 對象을 明白히 하는 方法으로서 接觸의 分野와 方法을 區別하고 이들을 組合式으로 결합시키는 接觸形態의 概念을 再설정하므로써 可能하리라 믿어집니다. 예를들어 「아스카文化 共同研究」라는 接觸形態가 있다면 이것은 사실상 文化分野중 「아스카」文化라는 것과 「共同研究」라는 方法의 結合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실제 이러한 分類는 可能합니다. 또 그리고 接觸論理를 体系化하는데 있어 接觸 單位를 明白히 하므로써 接觸順位와 容易度의 검토를 容易하게 합니다. 세계는 分類된 接觸形態를 接觸可能形態와 不可能形態로 區別해 보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分類를 通해 全體的인 論點을 發見하고 그 構成法則을 알아내므로써 効率的인 對北接觸戰略수립에도 기여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體制守護나, 同質性, 통합기능을 接觸形態를 대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보다 科學的인 尺度를 發見하는 일입니다.

아무튼 南北接觸 論理를 展開, 發展시키는 것은 그것이 기반하고 있는 共存論理, 協商論理에 못지않게 統一을 對備하는 重要한 課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4) 統合의 論理—過程으로서의 統一(II)

統一을 對備하기 위한 마지막 課題는 窮極적인 統一을 平和的 方法으로 實踐하는 論理가 무엇이나는 것입니다. 이에 對한 解答은 지금까지 세 가지 課題解決을 前提로 할때 機能主義的 統合理論을 導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西歐社會의 統合 研究를 위해 시도된 接近方法의 하나입니다. 기능주의적 統合理論이라는 것은 開放體制 國家相互間에 非政治的 分野에서 接觸이 활발히 이루어 질때 여기서 發生하는 파급기능(spill-over effect)에 의해 이는 窮極적으로 政治的 統合에 까지 연결된다는 論理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論理의 弱點은 接觸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接觸論理의 說明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開放體制 國家間에 適用되는 論理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韓國統一을 위한 기능주의 接近方法을 導入하기 위해서는 前記한 接觸의 論理를 完成하면서 北韓社會가 開放되어 自由化해야 한다는 前提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기능주의의 基礎論理를 韓半島에 적용시켜 韓半島式의 統合理論을 發見하는 作業은 결코 수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統一을 위한 對備로서 展開해 온 諸論理도 어느면에서는 窮極적인 統合理論을 形成하기 위한 細部作業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韓半島에 平和定着의 論理를 達成하고 協商의 論理를 打開하고 接觸, 交流를 實現함으로써 統合의 論理는 自然히 形成될 수 있는 것입니다. 크게 볼때 統一을 實踐하는 全過程에서 統合의 論理는 形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窮極에는 이러한 統合의 結

果과 우리에게 統一의 結果를 심어줄 것입니다.

5. 結 語

平和統一을 위한 全 國民的 念願을 達成하기 위하여는 政府의 선구적 役割은 勿論 學界, 專門家들의 부단한 努力이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統一의 課題가 至難한 以上 이것은 長期的이고 繼續적인 努力과 열성만으로 可能的 것입니다. 統一은 어느 한 世代만의 責任일 수 없듯이 어느 누구하나만의 責任도 아닙니다. 經驗的 세대 差에 기인하는 分断苦痛의 程度는 世代마다 다릅니다. 쓰라린 民族相爭의 비극을 體驗하기 못한 6.25 世代가 統一을 생각할때 자칫 과오를 범하기 쉽다는 기성인의 기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우는 기우로서 풀낼 수 있어야 합니다. 統一의 問題는 眞正한 感情의 問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다 보편타당한 知識體系를 通하여 統一 現象一般을 理解하고 또 將來를 探測할때 이러한 기우는 없어질 것입니다. 統一은 長期的 課題입니다. 또한 이같은 統一現象이 이미 歷史上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만이 經驗하는 初有의 現象이라는 點을 감안하여 現象을 論理로서 극복하고 發展시키는 꾸준한 努力이 繼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眞正한 國論統一을 이룩하는 길이고 나아가서 統一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분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北韓社會主義體制은 아직도 스탈린主義的 一國社會主義 形態이며 그것은 革命基地論의 性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常數는 獨裁體制와 南侵體制라고 自身있게 規定할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로스토크”에 依하면 이와같은 敎條主義 段階의 共產體制的 常數인 獨裁體制와 侵略體制는 最高獨裁者의 權力에 依해서 統一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빌로만·지라스”는 敎條主義 段階의 共產體制에서는 權力이 “알파”이자 “오메가”이며 權力이 그 體制의 目的이며 本質이란 것이다. 여기서 그의 支配體制를 金日成을 唯一支配者로 偶像化하고 南侵할것을 副策하고 있는 北傀와의 對話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은 明약관화한 것으로 分析된다. 그러면 이와같은 硬直體制는 卽 北韓社會의 常數이고 獨裁體制와 南侵體制는 固定不變的인 것일까? 歷史的 法則과 東歐의 經驗은 그렇지 않다는 事實을 示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變數 動力은 무엇일까?

3. 北韓社會의 變數와 그 矛盾點

가. 獨立變數

스탈린은 그의 國家概念에서 一國社會主義 形態는 對內外的 情勢 發展에 따라서 變形될 것이라고 말했다. 卽 對內的으로는 社會가 높은 段階로 發展되고 對外的으로는 資本家의 抱團을 一掃하고 社會主義가 그에 代替되면 可能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對內外的 兩大 變因에서 그는 外的變因을 強調함으로써 여기서도 그의 侵略性을 엿볼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一般社會史的 獨立變

數인 時間的 空間的 概念에 그의 戰略的 政治的 意圖를 代入시킨 것이긴 하지만 學術的이로나 戰略的으로는 一応考察해 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卽 이 內的 外的 變數概念은 그 因子의 逆機能으로 스타린의 예언과는 달리 오늘의 蘇聯社會에 逆現象을 招來한 것이 事實이지만 이것은 封鎖的 北韓社會의 變動 可能性에 큰 示사가 되기 때문이다. 卽 蘇聯社會의 對內的 發展은 集團指導체제의 動因이 되었고 西方側의 強力한 힘의 牽制政策은 그들의 武力的 侵略체제를 緩和시켰기 때문이다. 特히 東西間 交流를 통한 平和共存체제는 저들의 變質을 促進시킨 커다란 變因이 된다. 그런데 이와같은 內的 外的 變因이 作用하지된 또 하나의 變因中의 變因에는 스타린의 死亡이란 것이 있다. 따라서 “로스토후”는 共產社會의 獨立變數로 外的 內的 變因外에 이 指導的 變因을 強調하고 있는데 教條主義的 段階에서 이 權力은 너무나 強力한 機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와같은 北韓社會의 獨立變數에 代入시킬 因子는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 周邊情勢, 둘째, 北韓의 內的 發展度, 셋째, 金日成의 去就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北韓社會에 兩北韓 關係라고 하는 特殊 變因을 하나더 附加할 것이 望된다. 經驗的이로나 理論的으로 兩北韓 關係는 特殊機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純機能을 할 것인가 아니면 逆機能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北韓社會의 變動方向이 決定될 것이다. 여기 關해서는 뒤에서 다시 論할 機會가 있을 것이므로 다음에는 北韓社會의 變數를 考察하겠다.